

# GCC, 영화·드라마 제작 명소 '각광'

〈광주실감콘텐츠큐브〉

### 1천480㎡ 스튜디오·고해상도카메라·미디어서버 완비 전문 특화분야 개발·실무형 기술 인력 양성 경쟁력 강화

실감콘텐츠 제작 핵심 거점인 광주 실감콘텐츠큐브(GCC)가 영화와 드라마 제작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2년 11월 개관한 GCC는 스튜디오 기반 영상 촬영, 연구 개발, 실증, 기업 성장 지원, 체험 공간 제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이다.

특히 1천480㎡ 규모의 실감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10G 네트워크, 4K 이상 방송전문영상카메라 3대, 11개 미디어서버, 4K 고해상도 카메라 60대, 미디어 프로세서(3만5000루멘)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최첨단 가상 제작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완벽한 실감 촬영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실감 촬영 스튜디오는 올해 상반기에만 12건의 드라마, 공연 등의 촬영과 제작 일정이 확정돼 예약이 100% 완료된 상태다.

하반기에도 국내 주요 제작사 프로젝트 촬영 협의가 계속되고 있어 제작 예약이 조만간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지난해 실감콘텐츠산업 저변 확대와 GCC 인지도 확산에 주력한 데 이어, 올해는 GCC 주변에 실질적인 실감콘텐츠 공장이 될 수 있도록 공간

별 특화 사업을 병행해 기업 유치와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GCC 스튜디오 전문 특화분야 개발 ▲영상제작 환경 완비 ▲실무형 기술 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

스튜디오 전문 특화분야 개발은 버추얼 콘텐츠 제작 지원 시 드라이빙플

레이트(운전 장면)를 우선 추진하고, 가상콘텐츠 제작에 효율성이 높은 소재를 개발해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기업 영상 제작 지원 환경은 기업 수요형 연구 개발, 영상자산 아카이빙, 스튜디오 통합 홈페이지 구축, 스튜디오 운영 기술 전문화에 방점을 두고 추진한다.

기업 수요형 연구 개발은 지역 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개발하고 GCC가 시험무대가 되는 체제로 운영하며 촬영 콘텐츠인 영상자산은 촬영 콘텐츠 보유 기관 연계와 지원사업을 통해 지

속적으로 데이터화할 계획이다.

또 실감촬영 등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 3개 스튜디오와 광주CGI센터 종합촬영스튜디오, OTT 콘텐츠제작 스튜디오를 기업과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6월까지 스튜디오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GCC를 중심으로 한 연구 개발, 실증, 실무형 인력 양성 등 기업 맞춤형 지원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연계한 협업 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플랫폼인 광주실감콘텐츠큐브(GCC)가 영화와 드라마 제작 명소로 각광 받고 있다. 사진은 GCC 스튜디오에서 촬영 모습. (광주시 제공)

## 광주 문화예술 민간단체 136곳 지원

시, 시각·공연·문학 3개 분야 보조사업자 선정

광주시가 올해 문화예술 민간단체 136곳에 29억9천6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단체 중 야외공연이 가능한 단체를 선정해 프로축구 광주 FC 홈경기장이 열리는 날마다 공연을 선보인다. 또 광주비엔날레 기간에도 다양한 장르의 문화마실을 진행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7일 "2024년 문화예술 민간단체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결과, 시각·공연예술·문학 등 3개 분야 136개 단체를 선정, 보조금 29억9천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한

공모에는 시각예술 분야(미술·서예·사진·장애인문화) 44개, 공연예술 분야(국악·무용·연극·클래식·대중다원) 132개, 문학 분야 12개 등 총 188개 단체가 응모했다.

광주시는 사업 수행 역량과 사업 내용, 예산 타당성 등 심사를 거쳐 2월 말 광주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했다.

광주시는 오는 13일 오후 3시 전일빌딩245 대강당에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 및 집행 관리,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 기준 등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박선강 기자

## 전남도, C형간염 퇴치사업 대상 확대

7개군 98개 마을 1만4천여명 검사 내년 전지역 확대 국비 20억 건의

전남도는 7일 "2023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C형간염 퇴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사업 대상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형간염 퇴치사업은 전남도, 전남감염병관리지원단, 시·군 보건소, 호남권 질병대응센터, 광주·전남지역암센터가 참여해 C형간염 검진·치료를 제공,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관리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고흥·장흥·강진·해남·완도·진도·신안 등 해안 7개 군 98개 마을 실

거주 지역민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약 1만4천여명을 검사해 확진자 중 중위소득 130% 이하 환자에게 치료를 지원한다.

2022년 전남지역 C형간염 발생률은 인구 10만명 당 29.5명으로 부산(34.2명)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전국 평균은 1.61명이다.

C형간염은 예방백신이 없고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치료제가 개발돼 완치가 가능하다.

전남도는 C형간염 퇴치를 위해 10개년(총 사업비 388억원)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전지역 확대를 위해 질병관리청에 2025년 국비 20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김재정 기자

## '화엄사 삼세불도' 등 4건 전남 유형문화재 지정 예고

불교 유산 3건·유교 유산 1건...30일간 의견 수렴 후 심의

전남도가 조선 후기 불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구례 화엄사 각황전 삼세불도' 등 3건과 조선 후기 인물 임서를 기리는 '나주 임서 신도비' 1건을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지정 예고된 문화재 가운데 '구례 화엄사 각황전 삼세불도'는 1860년 화승 해운당 의찬과 30명의 화승들이 조성한 세로 길이 6m가 넘는 대작 불화다. 삼세불도란 과거불·현재불·미래불을 그린 그림이고 화승은 불화를 전문적으로 그리거나 회화 작업에 종사하는 승려다.

대시주자인 임응환과 구례현감 이종무 등이 왕실과 종실의 안녕, 세자의 탄생, 선왕선후의 천도 등을 기원하며 발원해 제작한 것이다.

조선 후기 왕실 발원 불교미술과 제작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고 대작이면서도 안정적 구도와 뛰어난 필력 등 19세기 전라도 지방의 화풍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예술적 가치도 지녔다.

'구례 화엄사 대웅전 동종'은 순천 일대에서 활동하던 김효건이 우두머리

작인으로 1722년 제작한 유일한 작품이다.

제작 연대가 확실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하며 18세기 동종 양식과 사장 계열 주종장들의 계보 연구에 귀중한 자료다. 사장은 왕실이나 정부 관서에 포함되지 않은 수공품 제작 장인이고, 주종장은 종을 주조해 만드는 장인이다.

'구례 화엄사 구층암 동종'은 조선 후기 활동한 사장계열의 대표적 주종장인 김성원이 보조 장인 도움 없이 단독으로 만든 작품이다. 주종기를 통해 제작 연대, 봉안 지역과 사찰, 발원자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어 역사·학술적 가치가 크다. /김재정 기자

'나주 임서 신도비'는 임서를 기리기 위해 김상헌이 글을 짓고 이경재가 글씨를 쓴 것이다. 신도비는 조선시대 정 2품 이상의 관직과 업적, 학문 등으로 후세에 모범이 된 사람의 묘에 세운 비석이다.

임서의 선대와 가계, 벼슬살이, 이광의 난 때 활동상, 건립 과정 등이 자세 히 기록돼 유교 문화유산으로서 역사·학술적으로 중요하다는 평가다.

유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4건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유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김재정 기자

## 5월 소년체전 정보통신 기반 구축 시동

주관사 KT, 무중단 서비스 제공

전남도가 오는 5월 제53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 기반 구축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1월31일 전문성과 수행 능력이 검증된 ㈜KT를 주관통신사로 선정하고 최적의 정보통신 기반시설 제공을 위한 경기장 실사 등 단계별로 빈틈없이 2대 체전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소년체전에는 주경기장 및 종목별 경기장 50개소에 전화, 팩스, 유·무선인터넷, IPTV 등 76회선 83대를 지

원한다. 전국장애학생체전에는 경기장 17개소에 566회선 642대의 정보통신 시설을 구축해 제공한다.

특히 개최식 행사 시 모바일 이용자가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이동중계차 배치, 대용량 무료 와이파이 설치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정보통신망은 대회 기간 중 무중단 운영을 위해 전송 구간을 이원화하고,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대회 운영망과 기자망을 분리 구축한다. 각 용도실에서도 유·무선통신망이 혼용되지 않도록 구성해 안정적 보안통신망으로 운영된다. /김재정 기자

**광주 친환경**  
**수목장 · 가족장**  
**24시간 연중무휴**  
**8상담문의**  
**062-449-4446**